

초청강연 II

| 일시 2022년 10월 20일(목) 16:45~17:20 | 장소 컨벤션홀 II+III (3F)



이준신

성균관대학교 교수
한국신재생에너지학회 회장
WCPEC-IAC 국제전문위원
청정에너지ICT연구소장

신재생에너지 현황과 미래 원자력과 신재생의 향후 공통과제

현재 경험하고 있는 급격한 기후변화는 인류가 사용하는 에너지원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 등 온실가스 방출에 기인한 것이다. 세계 135개 국가는 빠르게 온실가스 방출을 감축하기 위한 재생에너지 보급을 가속하기 위한 노력을 진행 중이다.

전기에너지 부분에서 방출하는 온실가스가 30% 이상을 차지하기 때문에 전력부문의 에너지 믹스 정책이 중요하다. 본 발표를 통해서 기후·환경 위기에 대응을 위한 에너지 전환을 신재생에너지의 시장현황과 각 국가별 동향을 살펴보고, 민간부문의 재생에너지 도입을 위한 활동 RE100과 CF100을 점검한다.

국내·외 에너지 믹스 현황과 방향을 검토하여, 원자력과 신재생의 향후 공통과제를 논의하여 미래 방향을 모색한다. 에너지 믹스는 각 국가의 상황에 따라서 다양하다.

그럼에도 세계적인 공통된 동향은 탄소 방출 에너지원은 축소하면서 재생에너지를 정책적으로 가속하여 보급하고 있다. 한국은 원자력, 태양광, 수소 및 에너지 저장 등에 글로벌 TOP3 에너지 기술을 선도하도록 계획하고 있다.

에너지 특구와 원자력과 신재생에너지의 양대 축 산업을 활성화하고 이를 수출산업으로 특성화 방안을 검토한다.

세계적으로 경쟁력이 있는 원자력과 신재생에너지를 융합한 Carbon Free 표준모델로 RE100과 CF100에 근간한 새로운 K-energy system을 확립할 수 있을 것이다

